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논문의 통합적 고찰

김정선¹, 김한나^{2*}

¹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An Integrative Review on Korean Studi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eong-Seon Kim¹, Han-Na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 보고된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그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합함으로써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통합적 문헌고찰이며,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개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학생’, ‘인성’, ‘프로그램’으로 각각 조합하여 검색 후 선정된 논문 13편이다. 연구결과,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효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인성교육은 단기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가정,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by reviewing the Korean studies and incorporating the results. The research method was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and for the study, 13 articles were selected by searching with key words, such as 'university student', 'character', and 'program' in 3 research databases, spanning between 2000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research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is common, and have been studied for the purpose of self-knowledge and improvement of sociality. Regarding the effective variables, research on self-esteem has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including various aspects of character is needed, and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arrang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with the cooperation of home, school, and whole society, not a one-time and temporary education.

Keywords :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tegrative review,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 전후의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사회로 나아가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이전의 신체적 변화의 시기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겪는 과도기이다[1]. 더불어 이들은 대학 입학 이후 확연하게 달라진 생활환경으로 인해 학업문제, 진로 및 취업, 복잡해진 인간관계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들은 잠재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2].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고등·대학생의 학교생활

*Corresponding Author : Han-Na Kim(Suwon Women's Univ.)

Tel: +82-10-6777-8515 email: hpsy@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6, 2016

Accepted April 7, 2016

Revised (1st March 8, 2016, 2nd March 18,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62.6%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51.8%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3].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과다한 학습활동과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격증, 스펙, 학점 관리 등에 집중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본연의 목적인 인성 발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관심은 대학 교육에서도 등한시 되는 것이 현실이다[4].

이처럼 인성교육이 등한시 되는 성적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발생과 나아가 졸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5]. 따라서 대학은 학생에게 단순한 사실적 정보와 전공 지식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문제해결 능력,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꿈,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6]. 이에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교육의 가치로서 인성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인성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에서 보충적인 의미가 아닌 필수교육이어야 함을 의미한다[7].

또한 Cho(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인성교육에 대하여 78.2%가 ‘매우 필요하다’에 다수가 응답하였다[8]. 그리고 가장 적절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 질문에는 ‘인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성교과를 중심으로’와 ‘교양 수업을 통해서’가 각각 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인성교과 교양 수업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9]. 따라서 대학의 인성교육은 배려, 정직, 공정, 책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

천을 포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이처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논문 및 연구들은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으며[11],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은 기존의 실험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분석방법보다도 확대된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2].

통합적 고찰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으며, 대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제시된 프로그램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디자인 및 측정도구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 기간, 방법 및 측정도구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확인하여 그 결과들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극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존문헌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수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분석, 평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 2)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변인)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관련된 국내논문을 통합적 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 절차

통합적 고찰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 실증적 연구 등의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등 모든 연구 설계를 포함하는 폭넓은 연구논문의 고찰을 통해 주어진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13]. 연구자들은 통합적 고찰방법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엄격하게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Whittemore(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은 문제규정(Problem Identification), 문헌검색(Literature Search), 문헌평가(Data Evaluation), 문헌분석(Data Analysis),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5단계로 구성된다. 통합적 고찰의 절차는 Whittemore와 Knafelz(2005)의 지침에 따라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13].

2.2.1 연구문제규정(Problem Identification)

통합적 고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과정으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를 통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2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내에서 보고된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 2)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구성요소, 효과변인)은 어떠한가?

인성 프로그램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분석대상이 된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

- 1)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 2)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논문
- 3)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학술지 논문 또는 학위 논문
- 4)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의 중복 시 학술지논문

• 제외기준

- 1) 대학생과 관련된 인성교육 요구도 조사 연구
- 2) 인성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법에 관한 논문
- 3) 대학생 인성 유형별 조사 연구

2.2.2 문헌검색(Literature Search)

통합적 고찰의 두 번째 단계는 문헌 검색과정으로 연구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와 주요용어 중심의 문헌검색과정을 거쳤으며, 추가적인 검색과정을 통해 자료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국내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며 ‘대학생’, ‘인성’, ‘프로그램’을 조합하였고, 국내검색 엔진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co.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한국과학기술정보(KISTI.re.kr)에서 검색하였다.

검색한 결과 검색된 모든 에서 검색한 논문은 총 51편이었으며, 중복으로 확인된 논문 15편은 제외되었다. 제외된 논문을 살펴보면 인성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문헌 9편, 인성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법 3편, 단순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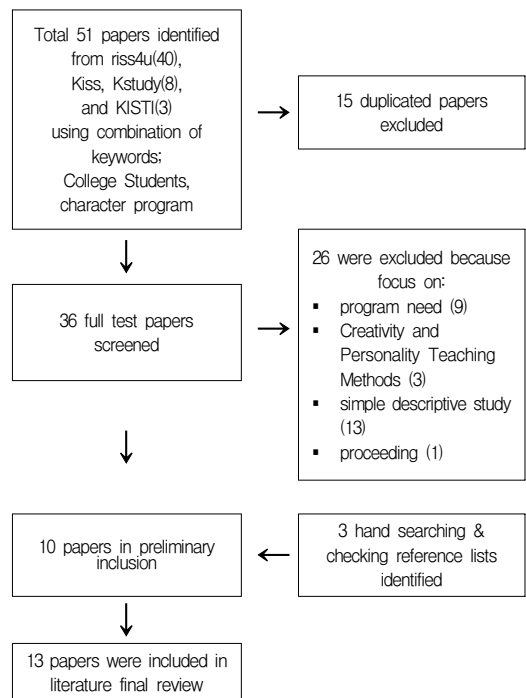


Fig. 1. Flowchart for article relevance assessment

구 문헌 13편, 포스터 및 학술대회 발표 1편이었다. 그리하여 초기 10편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10편의 참고문헌을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찾은 논문 3편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연구의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는 13편으로 확정되었다 [Fig. 1].

2.2.3 문헌평가(Data Evaluation)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평가과정으로 문헌검색과정에서 찾아낸 초기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다.

Whittemore와 Knafel(2005)에 의하면 통합적 고찰에서 논문의 질 평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논문의 선정과 제외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 평가도구인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STROBE) 도구[14]의 간소평가기준을 우선적인 근거틀로 활용하여 일차로 선정한 13편의 논문에 대한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논문에서 주제, 저자, 연구 설계, 목적, 연구 장소, 대상자, 변수, 분석방법, 대상자 수, 연구결과, 결론이 모두 포함되었는지의 11개 항목과 함께, 연구주제의 적합성, 방법론적인 질적 수준, 정보로서 연구결과의 가치 등을 평가한 결과 13편의 논문 모두 질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2.2.4 문헌분석(Data Analysis)

네 번째 단계는 원 자료를 편견 없이 해석하여 의미를 종합하는 데이터 분석과정으로 각 논문의 연구 주제의 적합성,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가치 등을 고려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연구 현황, 인성 프로그램의 운영, 구성요소, 효과변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2.5 문헌제시(Data Presentation)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 제시 단계로 자료 분석 내용을 연구 목적에 따라 제시하였다.

[table 1]은 분석 대상이 된 연구의 요약이며, [table 2]는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이고, [table 3]는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황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13편을 발표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연구는 없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편(23.0%),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편(77.0%)이었다. 연구 설계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유사 실험연구 11편(84.6%), 프로그램 개발연구 2편(15.4%)이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11편의 연구 중에서 연구대상자는 각각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6편(54.5%),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5편(45.5%)이었다.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현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3.2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프로그램 회기는 15회기 프로그램이 4편(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3회기 프로그램이 3편(23.0%)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9회기, 10회기, 12회기, 1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각각 1편(7.7%)이었으며, 프로그램 회기나 시간이 언급되지 않은 논문이 2편(15.4%)이었다.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자기이해 및 사회적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6편(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음챙김 또는 마음수련의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4편(30.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또한 긍정적 자기인식 및 감사하기를 하위요소로 구성된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2편(15.4%), 인지행동치료 및 예술치료 등 기존 심리치료를 통합한 통합심리학은 근거로 한 프로그램이 1편(7.7%)이 있었다.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 효과변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자아관련 변인으로 자아정체감, 자기능력지각,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자기-자비의 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적용관련 변인으로는 사회적, 심리사회적성숙도, 사회적 거리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연결감, 관계지향성의 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심리사회적성숙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각각 2편이었다.

Table 1. Trend of the Korean Studies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Authors (Year)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Program Session	Program Contents	Variables	Key Findings
Y. A. Lee (2006)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Study to Develop a Program	NA	12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mmended that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s to be effective to prevent from college dropouts.
J. H. Lee, M. S. Choi, & H. H. Park (2009)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815	13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Ego-identity, Perceived self-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bjectivity and intimacy were improved. the levels of scholastic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were improved.
H. S. Seo, E. S. Kong (2009)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29	9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Self-esteem, Sociability, Self-expr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f-esteem, self-expression, and sociabilit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same result was identified in the content analysis.
K. S. An, S. I. Kim, & H. G. Back (2010)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Quasi-experimental Study	All Grade 200	No Mention	Mindfulness	Self-esteem, Self-effi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f-efficacy were more affected by the frequency or intensity of the program than its duration.
S. Y. Ko, H. G. Baek (20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ntal Study	All Grade 88	13	Mindfulness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were improved.
E. M. Park (2012)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39	13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Psycho-social mat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ycho-social maturity total scores and sub scores were improved.
Y. S. Kim (2012)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Quasi-experimental Study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40	15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self-esteem, social sense of di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tudents with disability and without disability showed improved self-esteem and reduced social sense of distance.
E. J. Kim, S. Y. Ko (2013)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Quasi-experimental Study	All Grade 129	14	Mindfulness	Psycho-social maturity, Emo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ycho-social maturity affects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through emotion only.
J. H. Bae, K. Y. Jung (2013)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100	10	Positive Psychology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J. M. Kim, M. A. Jeon (2014)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Quasi-experimental Study	All Grade 132	15	Mindfulness	Mindfulness skills, Self-esteem, Social connectedness, Emotion regulation, Self-compa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dfulness skills, self-esteem, social connectednes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were improved. but no positive effect on self-compassion.
M. H. Ko, M. J. Kwon (2015)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468	15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charac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 three aspects of character were improved.
S. N. Son, I. Bae (2015)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Study to Develop a Program	NA	No mention	Integral Psychology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ysical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he program need to be prioritized.
J. W. Kim (2015)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ntal Study	Freshmen 229	15	Positive Psychology	Mindfulness skills, Gestalt contact boundary, Self-esteem, Relationship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level of connectedness sub-scale in Gestalt contact boundary scale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only.

정서관련 변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긍정 및 부정 정서, 우울, 마음챙김, 정서조절, 게슈탈트접촉경계 척도를 사

Table 2.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ies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ategory	Classification	n	%
Year	2000 - 2004	0	0
	2005 - 2009	3	23.0
	2010 - 2015	10	77.0
Research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11	84.6
	Study to Develop a Program	2	15.4
Research Subjects	Only Freshman	6	54.5
	All Grade	5	45.5

용하여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 중 마음챙김 척도를 사용한 논문이 2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대학생 인성도구를 사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본 논문이 1편이 있었다.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특성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통합적 고찰의 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13편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실태의 정도를 종합,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15년간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통합적 고찰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특성에서는 2004년까지는 발표된 연구가 없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편으로 2010년 이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년 1월 20일 전체 22개 조항으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9]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개개인의 정서적·심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마저도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5].

한편 최근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ategory	Classification	n	%	
Program Session	No Mention	2	15.4	
	9 Session	1	7.7	
	10 Session	1	7.7	
	12 Session	1	7.7	
	13 Session	3	23.0	
	14 Session	1	7.7	
Program Contents	15 Session	4	30.8	
	Self-understanding and Sociality	6	46.1	
	Mindfulness	4	30.8	
	Positive Psychology	2	15.4	
Program Effects	Integral Psychology	1	7.7	
	Related to Self	Ego-identity	1	
		Perceived self-competence	1	
		Self-esteem	5	
		Self-expression	1	
		Self-efficacy	2	
	Related to Adaption	Self-compassion	1	
		Sociality	1	
		Psycho-social maturity	2	
		Social sense of distance	1	
		Life satisfaction	2	
		Social connectedness	1	
	Related to Emotion	Relationship orientation	1	
		Psychological well-being	1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1	
Depression		1		
Mindfulness		2		
Character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emotion regulation	1		
	Gestalt Contact Boundary	1		
		1		

초·중등 교육에서는 물론 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새로운 대학 교육의 비전, 장기 발전계획, 교육 과정 개편 등을 제시할 때면 인성교육의 강화를 의례적인 수식어처럼 사용할 정도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각 대학의 의지가 가시화되는 반면, 실제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즉 인성교육 과정의 실체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설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사 실험연구 11편, 프로그램 개발연구 2편으로,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선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과정 평가나 효과의 개별화 측정을 위해 질적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11편의 연구 중에서 연구대상자는 각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6편으로 전체 연구의 5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신입생들에게 인성교육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인성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이나 더 나아가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5,17-18]. 또한 2017년도부터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19]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회기는 15회기 프로그램이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13회기 프로그램이 3편, 그리고 9회기, 10회기, 12회기, 1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각각 1편, 프로그램 회기나 시간이 언급되지 않은 논문이 2편이었다. Allport(1980)는 인성은 포괄적이며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체계로 인성의 개념을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 가능한 특성으로 보았다[20]. 즉, 의도적인 학습이나 반복 연습 및 피드백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역량으로 인성교육은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실행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1].

셋째,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6편로 가장 많았으며, 마음챙김 또는 마음수련의 명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4편,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2편, 통합심리학은 근거로 한 프로그램이 1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아성장 프로그램, 대학생의 정서 조절과 자기존중감 향상, 그리고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포함하는 마음챙김[22],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키고 강점들을 개발하며 긍정적 변화의 유도하는 긍정심리학[23], 삶의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신체, 인지테라피를 적용한 프로

그램[1]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시도 되고 있었다. 최근 대학생들은 인간관계 형성과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효율적인 사회인을 배출하는데 있으므로 체계적인 인성함양을 통해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며, 의사표현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4].

또한 Ko와 Kwon[26]도 전문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인지, 정의, 행동의 측면을 고려하여 집단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2015)에서도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대학의 인성교육은 배려, 정직, 공정, 책임,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또한 Son(2014)도 대학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몸’ 교육, ‘마음’ 교육, ‘지혜’ 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 인성교육 내용설정에서 되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25]. 한편 Cho(2013)의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연구에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로는 ‘개인주의적 가치로 인한 배려와 나눔 의식 부족’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희망하는 인성 프로그램으로는 예절교육(26.3%), 배려의식(23.1%)로 나타났다[8]. Ko와 Kwon(2015)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올바른 행동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올바른 행동으로 나누어 교육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6].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향후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구성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 효과변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자아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 적응관련 변인 중 심리사회성숙도와 삶의 만족도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정서관련 변인 중 마음챙김 척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대학생 인성도구를 사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 본 논문은 1편 뿐이었다. Lee, Choi와 Park(2009)의 경우 자기정체감과 자기능력의 지각 두 가지 변인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6]. 그 밖에도 Seo와 Kong(2009)은 자기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으로 검증하였으며[17], Park(2012)은 심리·사회성숙으로 검증하였다[18]. Kim(2012)은 사회적 거리감과 자아존중감 등으로 즉, 자아관련과 적응관련에 관한 변인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27]. 2013년 이후 연구에서는 자아 및 적응관련 변인 뿐만 아니라 정서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다양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본디 인성을 함양하는 과업’[25]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바람직한 인간 교육을 정의적,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균형 잡힌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효과성 측정에 있어서는 인성의 하위영역들을 측정하고 있어 효과성 검증에 보다 인성영역의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 정의, 행동의 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6].

기존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개 정규교육과정인 초등부터 중등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창의·인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 발표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르면[28], 사범대와 같은 예비교원양성기관에서는 2017년도부터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대학의 교육만을 통해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인성의 덕목도 존재하며, 인성 교육이 제도권 교육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인성교육 정책이 대학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교육에서 인성관련 정책 수립 및 실천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장차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 대학들이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고찰을 통하여 최근 연구동향분석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프로그램 구성내용과 효과변인을 제시하였지만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효과분석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및 내용분석 등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더 상세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N. Son., B. Im. “Developing a ‘Lebenstherapie’ as students healing program and its application to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9, No. 2, pp. 117-144, 2015.
- [2] W. H. Moon., K. S. Chung., M. J. Kim. “Mental health, stress, coping abili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 29, No. 3, pp. 103-114, 2012.
- [3] “2015 statistics on the youth”, Statistics Korea, 2015.
- [4] S. W. Park.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redefining the relationship for the poetics of character education”, Congress Forum Academic Seminar, 2015.
- [5] Y. A. Lee. “A study on the developing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form dropou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 9, No. 1, pp. 95-104, 2006.
- [6] J. H. Lee., M. S. Choi., H. H. Park. “The effec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6, No. 2, pp. 205-220, 2009.
- [7] J. W. Kim. “Efficacy analysis of d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481-491,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1.481>
- [8] M. S. Cho.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pplying to reality therapy: focused on the project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ality Therapy, Vol. 2, No. 1, pp. 58-75, 2013.
- [9] Korea Mis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mepag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0000>.
- [10] Y. D. Cho. “South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haracter education: build a dynamic network of companies, markets and character education”, Congress Forum Academic Seminar, 2015.

- [11] J. H. Nam, J. H. Kang. "A Study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 Docent Program: Focusing on ASYA AFF SAM program", *Art Education Review*, Vol. 54, pp. 136-166, 2015.
- [12] K. R. Shin, S. J. Shin, J. S. Kim, J. Y. Kim. "The effects of fall prevention program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preventive activity related to fall, and depression of low-income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1, pp. 104-112, 2005.
- [13] Whittemore, R., & Knaf, K.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2, No. 5, pp. 546-551, 2005.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5.03621.x>
- [14] P. Glasziou, J. P. Vandenbroucke, I. Chalmers. "Assessing the quality of research", Vol. 328, pp. 39-41, 2004.
- [15] J. B. Cha.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personality development education in the university and Opinions on their activations — focusing on the open curricula related to the personality development in S University",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2, pp.23-45, 2015.
- [16] J. A. Jeon. "A Case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Curricula of Four Universities in Seoul = How Do Universities Teach Their Students for Character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1, No. 9, pp. 5-31, 2005.
- [17] H. S. Seo., E. S. Kong. "The effect of personality edu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esteem, self-expression, and soci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Youth Protection and Guidance*, Vol. 15, pp. 53-70, 2009.
- [18] E. M. Park.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7, pp. 497-509,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7.497>
- [19] H. J. Im.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and integrity, metacognition, mastery-approach goal, communication skills, and autonomous educational climate at the college level", *Ehwa Women's University:Seoul*, doctoral dissertation, 2015.
- [20] Allport, G. 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Holt, New York, 54, 1980.
- [21] Y. K. Seo., M. H. Koh. "A case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applying project bas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Vol. 7, No. 1, pp. 49-77, 2013.
- [22] J. M. Kim., M. A. Jeon. "The effects of mindfulness based course o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3, No. 4, pp. 833-852, 2014.
- [23] Compton, W. C.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2005.
- [24] S. Y. Ko, H. Y. G. Beak. "A Study on Design of Ontologies for Wounded Heart Heal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1, pp. 641-649, 2012.
- [25] S. N. Son. "A didactical reflection on character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2, pp. 11-41, 2014.
- [26] M. H. Ko., M. J. Kwon. "Effectiveness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juni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Vol. 9, No. 1, pp. 1-20, 2015.
- [27] S. Y. Kim.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based social integration personal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ense of dista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1, No. 1, pp. 1-23. 2012.
- [28]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omepage,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boardSeq=59315>(May 15, 2015).

김 정 선(Jeong-S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신보건간호학석사)
- 2014년 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정신건강, 중독, 상담

김 한 나(Han-Na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